

2021년 11월 15일

2021 다음 한일 동성훈 교류 결과기록집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음



본 결과물은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2021 국제교류협력 지원사업 <글로벌 솔루션랩>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목차



- 프로젝트 개요 2
 - : TF 소개 4
- 프로젝트 수행 경과 5
 - : 준비단계 6
 - : 교류회제안 및 일정잡기 8
 - : 굿즈만들기 9
 - : 메리폴을, 후미노 스기야마, 히로시와의 만남 10
 - : 한국에서의 결과공유회 진행 11
 - : 결과집제작 11
- 교류 결과 정리 12
- 결론 및 활동소감 21

프로젝트 개요

〈한일 청년 동성혼 꿈꾸다〉란 이름으로 지원사업에 선정된 다움의 국제 교류 프로젝트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프로젝트 그리고 프로젝트 팀원들을 소개합니다!

글로벌 솔루션랩



한일 청년 동성혼 꿈꾸다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한국에서는 여전히 동성결혼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비슷하게 보수적인 가족관을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 문화권 전반에서 동성혼 법제화는 매우 어려운 일처럼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웃국가인 일본 삿포로 지방법원에서 2021년 3월에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 상황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본에서는 어떻게 이런 진취적인 판결이 가능했을까요? 다움의 궁금증은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다움은 이런 판결 뒤에 조직된 일본 시민들의 사회운동이 있었다고 파악하고, 일본의 동성혼 운동 단체나 성소수자 운동 단체와 만남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특히나 청년단체인 다움 입장에서는 이 흐름에서 2030대 청년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비슷한 문화권에 있는 주변 아시아 국가인 일본의 성소수자 운동과 교류회를 통해 참고점을 얻고자 했습니다. 과연 일본 동성혼 운동 속에서 청년들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일본 성소수자 청년들은 어떤 기대와 욕구를 갖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일본 성소수자 운동의 고민과 경험을 공유 받는 교류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또한 일본의 경험에서 한국에서도 참조할 만한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지역을 중심으로 한 청년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대중문화, 운동 간의 결합에 대한 경험과 고민 지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주변 국가에서도 이런 흐름이 있었구나, 우리도?” 하는 시각을 가지는 등 비슷한 고민을 가진 타국가 사람들을 직접 만나는 경험 자체를 통해 한국 청년들의 동성결혼 법제화 의지를 자극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다른 나라의 걸음으로 보이는 결과 속에 감춰진 치열한 고민들과 생생한 경험을 교류를 통해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을 한국과 일본 Youth LGBT 그룹 사이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후속적으로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번 일본과의 국제교류는 그 시작입니다. 다음은 장기적으로 아시아 지역의 LGBT youth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주변 나라들의 경험과 전략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고 사회운동에 필요한 유무형의 네트워크와 자원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제적 연대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과정을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협력관계는 다음 이 하고자하는 사회운동이 정체되지 않고 끊임없이 자극받고 진행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TF소개 !



성진



호야



제니



똥땅



기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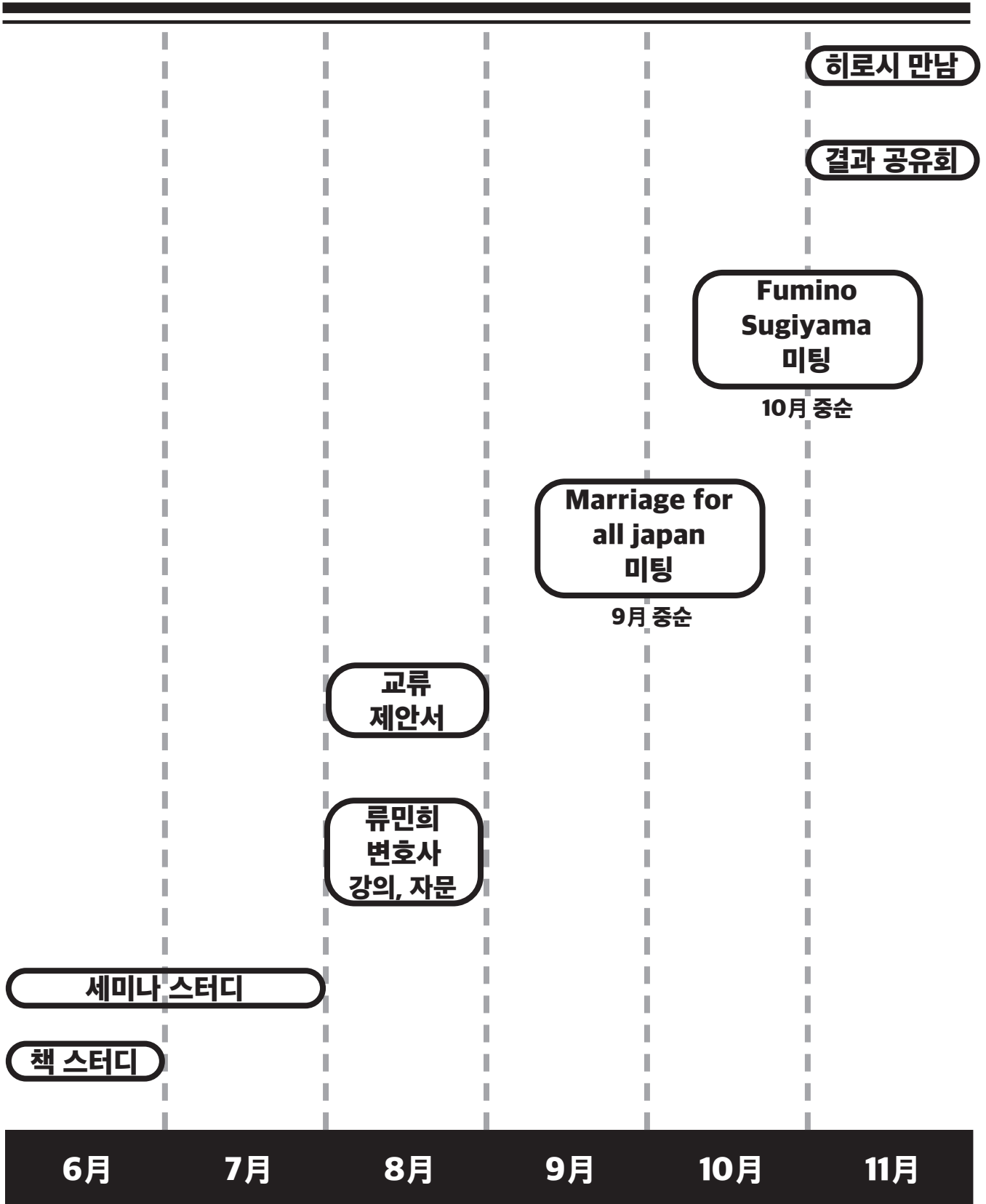
초키
통역지원



현

매주 회의와 공부를 같이 하던 소중한 우리 팀을 소개합니다. 우리 TF는 다음의 동성훈 TF입니다. DAWOOM 내부 회원들의 동성훈 법제화 욕구가 모아지면서 자연스럽게 TF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TF 팀원은 성진, 기용, 똥땅, 현준, 호야, 제니, 초키입니다. 성진님과 기용님은 TF총괄을 담당하고 똥땅님은 현장실무 및 Marriage for all 만남 요약물 맡아주셨습니다. 현준님은 제안서작성과 인터뷰 기획, 그리고 후미노 스기야마님 만남 요약물 담당해주셨습니다. 초키님은 통번역을 담당하시고 호야님과 제니님이 굿즈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프로젝트 수행 경과



준비단계 !

다음 동성혼TF의 궁금증은 '삿포로지방법원판결'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일단 삿포로지방법원판결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었는지부터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본 단체들과 교류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스터디를 많이 진행해야 했습니다. 특히 대면 교류가 아니라 온라인 화면 상으로의 만남이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내 풍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습득해야 할 정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첫 번째로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Japan court finds same-sex marriage ban unconstitutio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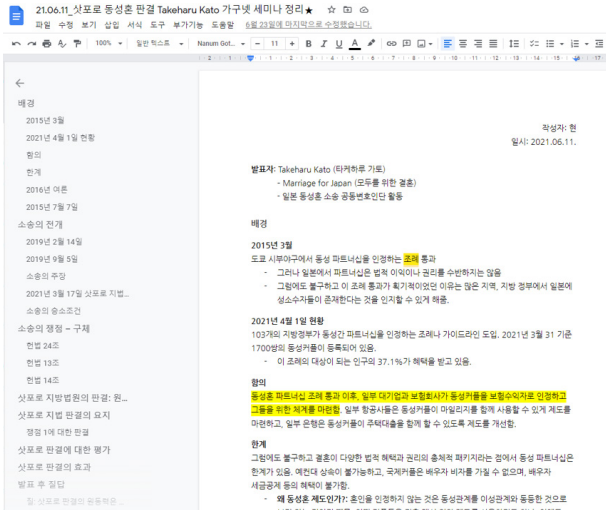
17 March



Supporters in Sapporo holding a banner that reads "unconstitutional decision"

3월 삿포로지방법원의 판결 언론 보도

우선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류민희 변호사 님이 한국에서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가구넷>에서 활동하시면서 한국의 동성결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동성결혼 흐름을 잘 알고 계신 것으로 알아 자문을 부탁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류민희 변호사 님과는 3번의 자문 미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미팅에서는 일본 현재 일본 사회와 성소수자 운동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대략적인 개요를 알려주셨고, 두 번째 미팅에서는 다음 회원들을 상대로 일본 성소수자 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 미팅에서는 교류회가 모두 끝난 이후에 저희도 결과를 공유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다음이 국제교류를 이어나가면 좋을지와 한국에서 어떤 동성혼 운동을 진행하면 좋을지 상담해주셨습니다.



일본 성소수자 운동의 현재

2021. 8. 4.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류민희
minhee.ryu@hopeandlaw.org

온라인으로 함께 스터디, 자문을 받았어요

자문과 자체 조사를 통해서 한 단체와 한 활동가를 만나보고자 결정했습니다. 바로 일본 동성결혼 운동 단체인 메리폴올(Marry For All Japan)과 도쿄프라이드 공동대표이신 후미노 스키야마(Fumino Sugiyama) 님입니다.



메리폴올(Marry For All Japan)



후미노 스키야마(Fumino Sugiyama)

두 교류회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여러 번의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거의 매주 한 번씩 스터디를 진행했던 거 같은데요. 미국 리 배지트의 <동성결혼은 사회를 어떻게 바꾸는가?> 등 관련된 책자들도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마침 의 타케하루 카토 변호사님이 <가구넷>의 초대로 삿포로지방법원 판결 진행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강연으로 하러 오신 겁니다! 다음 동성혼 TF도 바로 신청하고 참여하였습니다. TF의 준비께서 강연 내용을 아주 잘 정리해주셔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 스터디를 한 번 더 진행하기도 했어요. 후미노 스키야마 님의 경우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수많은 인터뷰와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사전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교류회 제안 및 일정 잡기!

교류회를 좀 더 진중하게 제안드리기 위해서 제안서도 일일이 디자인 하고, 내용도 여러 번 검토해서 보냈었어요. 마음이 전달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제안 메일을 보낼 때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연락을 드렸답니다. 과연 우리와 만나줄까. 단체 소개는 얼마나 자세하게 써야 할까. 우리가 궁금할까? 우리만 궁금한 걸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단체는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왜 이 교류회를 제안 드리는지 상술한 제안서를 작성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정성스럽게 꾸민 교류 제안서

저희가 사업 진행 타임라인이 정해져 있다보니 생각보다 서로 일정을 맞추는 게 어려웠어요. 하지만 메리 폴올에서도 후미노 님 쪽에서도 기꺼이 시간을 내주셨고, 메리폴올은 네 분, 후미노 님은 두 분이 함께 해주셨어요. 이렇게 제안서를 만들고, 발송하고, 일정을 서로 조율하고, 만나는데 한 달이 걸렸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정을 잡으면서도 이 행사를 통역해주실 분을 열심히 찾았어요. 저희는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 행사 자체에도 관심 있는 청년 통역사 분과 협업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대학에서 일본어를 전공하시고, 저희 행사에 관심을 가져주신 통역사 분과 연락이 닿았고 그게 지금 이 사업을 함께 해주시고 계신 츠키님입니다! 통역과 번역에서 츠키님이 정말 큰 역할을 해주셨고, 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셔서 함께 협업하는데 매우 수월했습니다.

굿즈 만들기!

교류회를 진행하면서, 자주 없는 국제교류 행사이기도 한 만큼 기념품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메리폴 올과 후미노 스기야마에게 보낼 기념품 굿즈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걸 보내면 좋을지 생각하다가, 자체 디자인한 우산과 동성결혼 캐릭터 스티커를 제작하기로 했어요. 우산은 무지개를 떠올리다가 연관되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호야님이 많이 수고해주셨어요! 우산과 스티커를 포장해서 메리폴올과 후미노님의 사무실로 직접 우체국 해외배송을 이용해 보내드리게 되었는데, 잘 받으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소소한 선물이지만 9, 10월의 만남을 잘 간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다음에서 제작한 LOVEisLOVE 우산!
네 면마다 한국과 일본 전통 결혼 의상을 입은 동성커플이 그려져있답니다!

메리폴을, 후미노 스기야마, 히로시와의 만남!

그리고 대망의 교류회! 9월 15일 메리폴을, 10월 13일 후미노를 만났습니다. 모두 온라인 화상 프로그램인 Zoom을 통해 만났는데요. 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궁금증을 해소했어야 했고, 만남은 매우 밀도 있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 다움 단체 소개 또는 발표를 할 때는 순차 통역을 통하지 않고, 별도로 미리 준비한 일본어 자막을 통해서 통역을 갈음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밀도 있는 진행을 할 수 있었던 데는 두 교류회에 임해주신 일본 활동가 분들이 너무나 친절하고 성의껏 답변해주셔서 가능했던 거 같습니다.

화면 상으로만 이야기를 나눠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는데, 너무나도 운이 좋게도 메리폴을의 이케다 히로시님과 한국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닿게 되어 11월 13일에 직접 찾아뵈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시간을 할애해주신 히로시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챕터들에서 공유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의 결과공유회 진행 !

한국 시민들과 일본과의 교류회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온라인 줌과 오프라인 스튜디오 참여를 병행하여 결과공유회를 11월 6일에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하게 한국의 성소수자 웨딩플래너로 활동하고 계신 가람님이 패널로 등장하셔서 2부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한국에서 앞으로 어떻게 동성혼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드러낼지 이야기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동성커플에 대해 전문적인 웨딩플래너라는 직업은 어떻게 결정하게 되었나요?" 질문에 답하시는 가람님

결과집 제작 !

그리고 대망의 결과집 제작! 지금 보고 계신 이 결과기록집도 TF원들이 부분을 나눠 분담해 쓰고 있습니다.

결과 정리

가나긴 준비 시간을 거쳐 드디어 교류행사를 진행했습니다! 9월 15일과 10월 13일 각각 Marriage For All Japan(줄여서 메리폴올), 후미노 스기야마님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2시간 동안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9월 15일 메리폴올과의 만남 !

9월 15일 늦은 오후 7시 메리폴올과 zoom에서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메리폴올은 일본의 대표적인 동성혼 운동 단체입니다. 많은 나라에서와 같이 동성혼 법제화에 필요한 활동을 위해 변호사분들도 함께하십니다. 올해 3월에 있었던 삿포로 지방법원에서 ‘결혼의 효과를 동성커플에 적용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던 소송 또한 메리폴올의 활동이었습니다. 이 날 메리폴올과의 만남에서는 카토님과 히로시님, 토케이다님 그리고 청년 인턴이셨던 도이님까지 네 분이 참석하셨는데요, 먼저 다움을 소개하고 호야님과 똥땅님께서 자신이 동성결혼을 바라는 이유에 대해 에피소드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메리폴올의 네 분께서 각각 메리폴올에 대한 소개, 메리폴올의 다양한 활동과 사회, 정치적 환경, 청년세대와의 연결에 대해서 공유해주셨습니다.

私は同性結婚がしたい - エピソード共有
나는 동성결혼이 하고 싶다 - 에피소드 공유

Ttung-ttang

Ho-ya

Dawoom - Marriage For All Japan Meeting

“나는 동성결혼이 하고 싶다” 똥땅님과 호야님이 직접 에피소드를 소개해주셨어요

메리폴올의 소개 및 발표 !



메리폴올은 섹슈얼리티와 상관 없이 모든 사람들이 결혼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메리폴올이라는 이름은 'Marriage for All Japan', 즉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결혼 제도를 고쳐나가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리폴올의 미션은 첫째, 결혼의 자유를 모두에게라는 재판을 서포트함으로써 먼저 재판을 통한 혼인 평등, 동성혼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입법부인 국회를 통해 리포트?로 동성혼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론 환기입니다. 일반인들에게 동성혼의 문제라던가, 예를 들면 결혼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인해 동성 커플이 직면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함으로써 동성혼을 지지하는 여론을 끌어올리고자 합니다.

메리폴올의 구성원은 변호사가 중심 멤버로 가장 많지만, 이외에도 PR이나 미디어의 전문가, 영상의 전문가, 학생 인턴 등을 포함하여 3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부 급료를 받으면서 활동하는 멤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멤버는 자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위한 자금은 개인 혹은 여러 단체나 기업의

기부를 받으며, 해외의 여러 LGBT의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에 지원해서 기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로는 전국의 80여개의 찬동 단체와 연계하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가 함께 만나는 자리를 주선하고 미팅을 운영해 다른 단체들의 의견을 듣거나 메리폴올의 활동에 지원과 협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메리폴올의 조직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명의 대표가 있습니다. 대표 아래에 각 팀의 리더가 있고, 이 리더들이 팀의 활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각 팀은 PR, 소송 지원, 이벤트, 동성혼 관련 정보를 일반 시민에게 전달하는 정보 발신, 기업 연계, 기업과 연계하는 어드보카시, 글로벌, 리서치, HR, 자금 운영 등의 등의 팀으로 구성되며, 각 팀은 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한 달의 한 번은 모든 팀이 참여하는 미팅을 열어 단체의 운동 활동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메리폴올의 가장 두드러진 활동은 '결혼의 자유를 모두에게' 재판입니다. 2019년 2월 16일에 전국 4개 도시의 재판소에서 재판을 시작했고, 지금은 전부 5개의 도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삿포로 재판소에서 동성혼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메리폴에서는 ‘사회 개발’을 위한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동성혼 운동가와 함께하는 행사를 주체하거나, 핑크닷 오키나와 같은 성소수자 행사의 세션에 참여했습니다.

여러 부부의 형태가 있으므로 남자와 여자만 부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다른 성도 충분히 결혼이 가능하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 11월 22일(이이 후후노 히)을 좋은 부부의 날로 지정하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추후 동성혼이 합법화된다면 동성간의 결혼식이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좋겠다는 희망을 담아 제작한 남성 커플의 결혼식 비디오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메리폴에서는 기업의 지원이 증가하게 되면 정치권이 움직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연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루카리라고 하는 유명한 중고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는 일본 기업에 메리폴의 대표가 기업의 사원에게 점심시간에 동성혼 문제에 대한 설명회를 열거나, 국제적인 기업들을 중심으로 동성혼을 서포트하는 외국계 기업을 모아 동성혼에 대한 활동과 동성혼을 위한 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설명회를 주체했습니다.

지금 business for marriage equality를 지지하고 있는 기업은 9월 15일 기준으로 178개(11월 15일 기준 199개)의 기업이 찬동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구글, IBM과 같은 큰 외국계 기업이나, 미쓰비시 케미컬이나 시세이도 같은 일본의 대기업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메리폴은 동성혼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을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회의원 측에 로비를 하는 ‘Advocacy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메리폴을 국회는 동성혼이 불가능해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임기 중인 국회의원들에게 이해를 어필하는 자리로 현재까지 3번 주최되었습니다.

일본의 여당인 자민당과 여러 야당의 위원을 만나 ‘결혼의 자유를 모두에게’ 재판 원고들의 이야기를 의원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원 사무실이 모여있는 지역에 메리폴을 멤버들이 방문하여 인

사를 드리는 등의 직접적인 접촉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리폴은 국제 단체와의 교류하거나 국제기관에서의 발표를 하는 ‘글로벌 연계’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도쿄 레인보우 퍼레이드에서 행하거나 2년 전에는 뉴욕의 레인보우 퍼레이드에서 메리폴의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뉴욕의 레인보우 퍼레이드에 참여했을 때, 뉴욕에 있는 재판소에서 미국의 LGBTQ 그룹 분들과 교류할 수 있었고, 변호사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LGBT 팀과 함께 교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2019년 서울에서 개최된 ILGA(International Lesbian and Gay Association) 아시아 컨퍼런스에서도 동성결혼 관련 세션을 가졌습니다.

메리폴은 동성혼 활동을 넓게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동성혼을 테마로 여러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상황 하에서 오프라인 이벤트가 힘들기에 온라인 상에서 게스트를 부르거나, 일본의 제헌절에 헌법학자, 저명한 학자나 유명인을 불러 일반인의 관심을 상기시킬만한 이벤트를 진행해왔습니다.

그 외의 미국의 동성혼 재판을 찍은 영화의 상영회를 일본 각지에서 진행하여 동성혼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관촬아 총회(다이쇼부 총회)를 통해 일본에서 실제로 동성혼이 성립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단체나 기업이나 일반 시민들이 지원을 하는데, 이러한 지원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설명회를 가지고, 유튜브를 통해 대외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벤트를 여러 개 개최하며 아직 도심부와 지방에서의 동성혼에 대한 온도 차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십 제도가 확산되고 있지만 그것이 곧바로 동성혼 법제화로 이어지지 않고 판단 중이라고 합니다. 동성혼 법제화까지의 과정이 아직 남아있으며 특히 동성 커플에 대한 혐오가 지방에서 아직 적지 않기 때문에 지방에서의 PR 활동도 앞으로의 주요 과제인듯합니다.



이외 다음에서 질문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진행해주셨는데요,
이케다 히로시님께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답해주신 내용 일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Q. 일본의 동성혼 운동과 성소수자 인권 운동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먼저 일본의 동성혼 운동과 관련된 역사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 미국의 최고 재판소에서 동성혼이 성립된 것, 다른 나라들에서 동성혼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했던 것 등의 영향을 받아 2015년 이후 일본에서도 많은 움직임과 의식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소지(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SOGI) 차별금지법 제정 활동인데요, 이 행동은 2015년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일본 변호사 연합에서 동성혼이 안 되는 것이 인권침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일본 변호사 연합에서 동성혼이 안 되는 것이 인권 침해라는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꽤나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일부 인원이 별도로 '결혼의 자유를 모두에게'라는 재판을 진행시켰고 이것이 추후 메리폴올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2015년에 다른 두 개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소지 차별법에 대한 논의, 결혼의 자유를 모두에게라는 재판 각각 조금 다른 시간에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노선, 상황이 병행되고 있는 것, 이 문맥을 이해하는 것이 메리폴올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씀주셨습니다.

Q. 일본의 동성혼 운동은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나요?

첫 번째 참가자로는 원고, 결혼을 모두에게 재판의 원고분, 한 마디로 동성혼이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곤란을 많이 겪고 있는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일변면에서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인권에 반한다고 주장했던 Takeharu Kato님과 같은 변호사나 법률관계자분들입니다. 이 분들께서 재판에 관계되거나 메리폴올의 중요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이케다 히로시님 같이 이전부터 LGBT 관련된 활동을 이끄신 활동가로서 국회의원들에게 로비나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현재 동성혼 법제화를 위해 희망을 부르짖고 계신 분들은 앞의 세 개 그룹이 중심이 되지만, 이외에도 다른 분들이 참여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LGBT나 동성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디어 관계자, 그리고 비즈니스 계의 사람들도 참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부의 학자 분들, 학술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유명한 연예인 분들도 목소리를 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10월 13일 후미노 스기야마님과과의 만남 !

후미노 스기야마 씨는 일본 여자 펜싱 국가대표팀에서 활동한 전직 펜싱 선수이자 트랜스남성 인권활동가입니다. 2006년에 자서전 출판과 함께 커밍아웃 후, 2013년부터 도쿄 프라이드 공동대표로 활동하였고 2015년 시부야현의 동성 파트너십 조례 도입에 중심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후미노 씨와 만나서 다음을 소개하고, 후미노 씨로부터 도쿄 프라이드 기획과 운영, 일본 대중문화 속 성소수자, 청년층의 관심도, 시부야현 동성커플 파트너십 도입을 이끌어낸 경험과 당사자로서의 후미노 씨의 경험에 대해 들었습니다.

これからの活動は？ 앞으로의 활동은?

研究結果を基に、青年性的マイノリティーの特異性を発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청년 성소수자 특이성 발굴

性的マイノリティーの若者の欲求を政策化し權益を代弁する活動
청년 성소수자 욕구를 정책화하고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활동

定期的な研究調査を行い、青年性的マイノリティーに対するデータセットを確保
정기적인 연구조사를 수행하고 청년 성소수자에 대한 데이터 세트 확보

活動入門の機会を広げ、定期的な教育を実施して青年世代の再生産
활동 입문의 기회를 넓히고, 정기적인 교육을 진행하여 청년 세대 재생산

35歳まで

Dawoom - Fumino Sugiyama Meeting

성진님이 다음에 대해서 소개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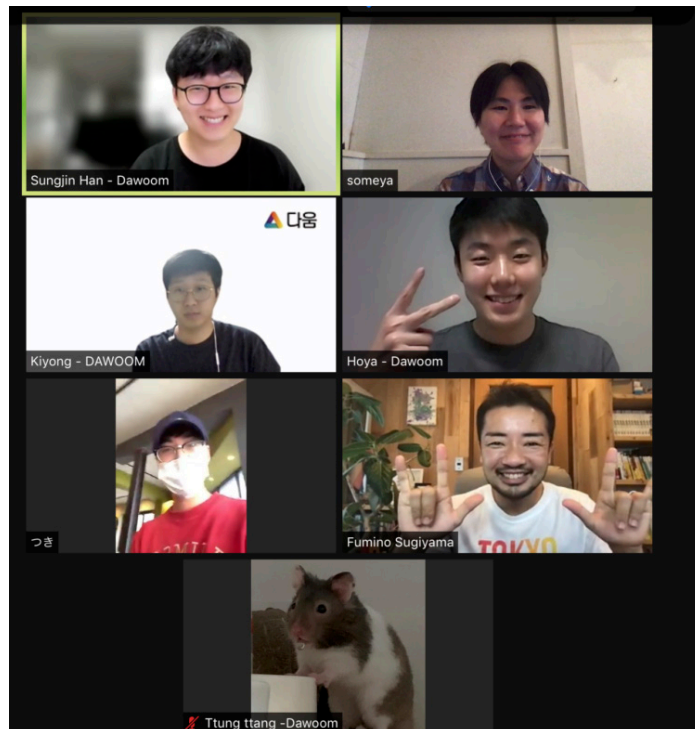
도쿄 프라이드

후미노 씨가 도쿄 레인보우 프라이드를 시작할 때,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도쿄 프라이드의 허들을 낮추어서 퀴어들을 가시화할 것인가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프라이드 퍼레이드가 머리에 띠를 두르고 인권을 주장하는 데모 형식을 띠어서 무거운 느낌을 주었다면, 후미노 씨는 도쿄 프라이드를 보다 즐거운 페스티벌로 변형하여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90%의 비성소수자들에게 퀴어를 가시화하지 않으면 사회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소수자 당사자보다는 얼라이가 핵심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렇듯 프라이드 퍼레이드는 무겁기보다는 즐거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얼라이를 끌어들이고 얼라이들에게 목소리를 줌으로써 비성소수자에 접근하려 했습니다. 프라이드에서 기업의 지원을 확보하고, 하마사키 아유미와 같은 유명 가수가 콘서트에 참여하고, 일본에서 누구나 아는 연예인들을 섭외했습니다. 또, 주일 미국 대사 등을 포함한 외국의 대사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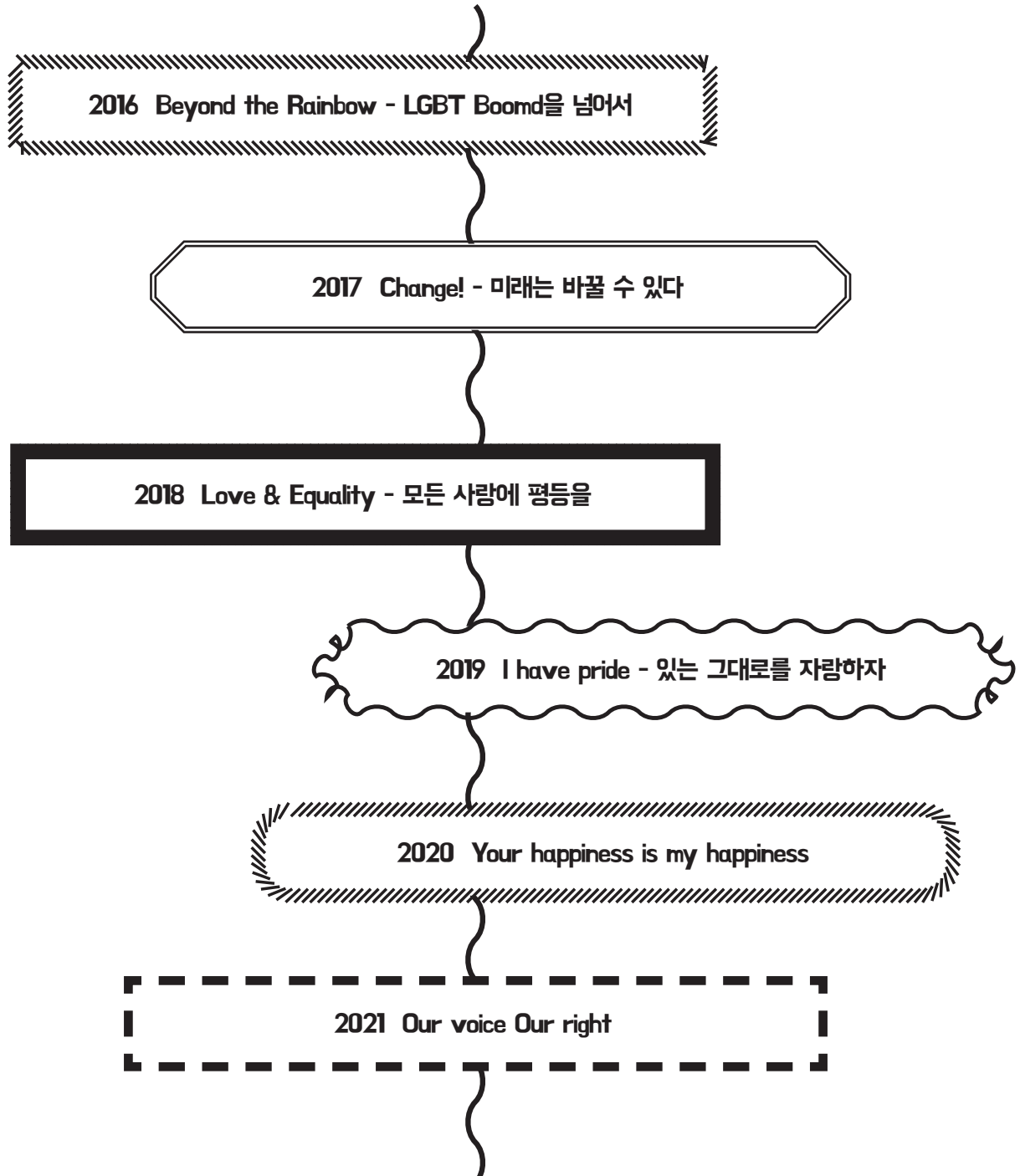
이러한 페스티벌의 분위기 변화는 실제로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012년에는 약 5천 명이었던 참가자 수가 2019년에는 20만 명으로 늘어나고, 온라인으로 진행한 2020년 프라이드 퍼레이드 라이브에는 약 45만 명이 참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2020년 퍼레이드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는데 접근성과 참여인원수가 급증하여, 팬데믹 이후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행사를 동시에 진행하려 합니다. 지방에 거주하는 분이 참여하시거나, 오프라인 퍼레이드에는 데리고 오기 힘든 부모님과 함께 온라인으로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었다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온라인상에서 유튜브로 더 많은 콘텐츠를 내보내서 아웃리치를 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후미노님께서 캡처해주신 미팅 장면. 반가웠습니다!

도쿄 프라이드의 의제와 메시지



후미노 씨는 도쿄 프라이드의 슬로건과 메시지가 매년 상황에 맞추어 조금씩 변화해왔다고 도쿄 프라이드의 다양한 슬로건들과 그 슬로건들을 선택한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슬로건의 변천사는 일본 LGBTQ 운동 포커스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의제를 내거는 행사에 참여하기를 꺼려하는 일본 문화상, 접근성과 확장성을 고려하여 동성혼 대신 equality라는 단어를 사용한 결정 등이 흥미로웠습니다.



2016년에는 ‘LGBT 붐을 넘어서’ (“Beyond the Rainbow”)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이 슬로건을 사용한 이유는 15년도에 시부야구에서 동성 파트너십 제도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아, 지금 LGBT가 붐이네’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드 퍼레이드에서는 LGBT가 15년도에 갑자기 붐이 된 것이 아니라 언제든 옆에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알리자는 취지로 슬로건을 정했다고 합니다.

2017년에는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Change”를 슬로건으로 선택했습니다. 15년도, 16년도에는 앞서 말했듯이 화제가 됐지만, 현실은 많이 변화하지 않았다고 체감했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현실을 확실히 바꿔나가자는 마음을 담아 이 슬로건을 정했다고 합니다.

2018년에는 ‘모든 사람의 평등을’ (“Love & Equality”)라는 슬로건을 사용했는데, 이는 18년도부터 사람들이 동성혼을 보다 널리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정치적 의제를 거는 행사에는 사람들이 참여하기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놓고 동성혼을 의제로 걸게 되면 참가자 수가 적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동성혼을 전제하면서도 이러한 의제를 조금은 숨기기 위해서 “Equality”라는 슬로건을 선택했습니다.

2019년에는 LGBTQ 라이브 활동의 원점이었던 Stonewall 반란의 50주년과 동경 레인보우 프라이드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있는 그대로를 자랑하자’ (“I have pride”)를 슬로건으로 했고,

2020년에는 코로나가 많이 퍼져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한 시기였다. ‘누군가는 행복해도, 나는 행복하지 않아’라는 마음이 퍼지고 있어서 ‘나의 행복은 너의 행복이다’ (“Your happiness is my happiness”)라는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LGBTQ에만 한정하지 않고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꿈꿔보자는 생각을 담았다고 합니다.

2021년의 테마는 목소리를 내고 세계를 바꾼다는 의제를 나타내는 “Our voice, our rights”을 슬로건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때까지의 가시화를 통해서 LGBTQ에 대한 의제가 많이 나왔지만 동성혼이 아직 성립되지 않는 등 실제 변화가 미미한 부분도 있어서 목소리를 내서 세계를 만드는 룰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일본의 일상적 문화 속 성소수자와 청년의 성소수자 의제 참여

후미노 씨는 일본에서는 성소수자, 특히 트랜스젠더가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컨대 남성이 여성을 연기하는 가부키와 여성이 남성을 연기하는 Takarazuka는 일본의 독특한 문화입니다. 또, 대중문화적으로도 Matsuko Deluxe 등 성소수자 코미디언이 등장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기업 광고도 많고, 국민적으로 인기 있는 남자 배우가 트랜스여성을 연기하여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트랜스젠더 commentator, 커밍아웃하고 책을 써서 여성으로 상을 받은 대기업 부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성소수자들을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습니다. 물론 2015년 전까지는 성소수자들을 방송이나 밤 술집에서만 볼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시부야현 동성 파트너십 제도 도입 이후에는 자신의 주변에도 성소수자가 있음을 자각하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대학 사회의 경우, 주요 대학에는 LGBTQ 단체나 GS (Gender & Sexuality) 센터가 있는데, 이는 학생이 제안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 대학별로도 활동이 있고, 대학끼리 연대하여 도쿄 프라이드에 부스를 내기도 합니다. 또, 대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들도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자원봉사를 하거나, 선생님이 반 전체를 동반하여 오는 경우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대학생은 아직 결혼이 먼 일로 느끼기 때문에 대학생보다는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청년들이 동성혼 메시지 발신에 대해 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후미노 씨는 또한 과거와 현재의 활동 형태나 태도가 달라졌다고 설명합니다. 청년의 경우 당사자와 비당사자 모두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고,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의 뜻을 밝히는 사람도 있고, 열성적으로 활동하는 청년도 있는 반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사라졌다고 인식하여 무관심한 층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기존 활동가들이 자신들이 겪었던 탄압과 설움을 바꾸기 위해 활동했는데, 지금 청년세대 중 일부가 더 이상 차별이 없다고 느끼고 무관심해져서 기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활동가들의 역사를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부야현 동성 파트너십 조례 도입

시부야현에서 동성 파트너십 조례가 도입된 것은 2015년인데, 이는 갑작스럽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 15년도 더 거슬러 올라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부야 의회에 동성 파트너십을 제안한 하세대 캔 씨와의 고등학생 때의 인연이 어떻게 동성 파트너십 제정에 기여했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세대 캔 씨는 청소년 봉사활동에서 만나서 서로 얼굴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세대 캔 씨가 동성 파트너십 제정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더블 해피니스> 출간 이후 후미노 씨를 보러 많은 성소수자 당사자들이 청소년 봉사활동에 참여했을 때라고 합니다. 이때 성소수자가 많다는 점을 인지한 것이 주요한 동기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후미노 씨는 이때 자신을 보고 싶다는 성소수자들을 청소년 봉사활동에 초대하는 것은 전략적이지 않고 친구를 돕자는 단순한 이유에서 였다고 합니다. 사회를 바꾸자고 결심한 한 사람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친구를 돕자는 작은 한 걸음도 굉장히 중요하며, 한 사람이 백 걸음을 힘내는 것보다 백 명이 한 걸음씩 힘을 내는 게 중요하다는 소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지금은 일본 인구의 약 40%가 거주하는 130여 개의 지자체에서 동성 파트너십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 구성

후미노 씨는 여성 연인과 함께 두 아이의 부모이고, 지인 게이 활동가분의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가졌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2004년에 제정된 성동일 장애특별법에 따라 생식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성별 정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현재 연인 분이 싱글맘으로서 아이를 키우고 있으며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서로 누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동성커플 등 다양한 가족과 그들의 아이를 위해서 특별법과 동성혼 제도를 함께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결론

마무리로 이번 일본 성소수자 운동과의 만남의 의미를 짚기 전에, 국제교류라고 하는 것 자체의 의미를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짧게 좀 다뤄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자체가 국제행사인 일가 아시아 컨퍼런스를 계기로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일가 아시아는 일가, 국제성소수자협회 아시아 지부입니다. 다음은 이 일가아시아 컨퍼런스에 참여하면서 많은 나라에서 청년 계층이 재생산의 의미로든, 자원의 빈약함이든 활발한 활동성이든 여러 가지 의미로 중요하게 다뤄지고,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 청년들도 스스로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속가능한 인권활동에 관심이 있었던 다음 초기 멤버들이 그런 현상에 감명 받아 다음을 설립하게 되었던 것이죠.

국제교류는 우리가 속한 사회를 외부의 관점에서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사회운동적으로도 방법론에서 새로운 영감을 주기도 하고, 내용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 사회의 특징이 조금 더 명징해지기도 합니다. 문화적으로, 규범적으로 이 사회가 가진 자원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이번 일본 교류를 통해서 한국은 비록 동성혼 자체가 법제화되는 것은 특정 종교나 정치인들에 의해 조직적인 반대에 의해 어려운 환경이지만, 성소수자 인권운동 안에서 동성혼을 충분히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었다는 점, 동성혼을 사회적으로 캠페이닝 하는 거점 단체들이 이미 있고 그 역사가 오래 되었다는 자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반면 문화적으로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지지하는 인플루언서, 연예인, 정치인 같은 공인들이 더 많아질 필요가 있고 기업이나 문화적으로 그러한 사회적 지지들이 많이 부족한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소수자 관련한 만화, 드라마, 영화 작품들도 더 많이 시도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동성혼 법제화에 대해서 함께 주장해주시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동성애 합법화라고 언급하는 정치인들도 있지만, 사실 동성애는 한국에서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동성 간 혼인이 인정받지 못하고, 동성파트너십이 전혀 인정 받지 못하고 있어 동성커플들은 시민권적으로 낮은 수준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결혼을 하고 싶은 동성커플이 있다면 결혼이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성혼은 법제화되어야 합니다. 내 동반자가 서로에 대해 온전한 가족적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더 다양한 가족들이 인정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성혼에 대한 인정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점을 한국 사회 곳곳에 전할 수 있다면, 변화는 조금 더 빠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번 교류회와 이 결과 공유가 한국의 동성혼 운동을 자극하고,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동성혼 TF는 앞으로도 한국의 동성혼 법제화를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네트워크도 계속 유지하고, 내년에 팬데믹 상황이 끝나면 직접 일본에 방문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생생한 교류를 이어 가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국제교류를 밑바탕으로 삼아, 더 많은 나라의 성소수자 단체, 그리고 청년단체들과도 교류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활동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변화를 만드는 다음에게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11월 중, 지난 기억을 되짚으며 앞으로 활동에 대해 얘기해보았어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활동 소감



TF활동 소감 호야

안녕하세요. 동성혼TF팀원 호야입니다. 저와 파트너는 한국에서 7년째 연애 중입니다. 우리 커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인을 넘어 인생의 반려자로 함께하고 싶은 결혼욕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DAWOOM에서 진행될 여러 사업들 중 동성혼 TF가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DAWOOM회원으로서 첫 활동을 동성혼 TF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성혼 TF에서 일본단체에 보낼 굿즈 관련 업무를 맡았습니다. 굿즈 선정, 디자인, 업체선정, 주문까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진행하기 위해 DAWOOM내 디자인팀과 회계팀 그리고 굿즈 제작 업체와 직접 소통하며 여러 협업 속 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제가 처음 해보는데, 흥미로웠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 다른TF에서도 굿즈 관련 업무를 맡게 되면 이 경험을 기반으로 일을 진행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번 TF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부분은 Marriage for All 단체와 교류회에서 한국 성소수자 청년 동성혼욕구 에피소드 발표 부분이었습니다. 저와 제 파트너는 서로 결혼하고 싶지만, 우리나라는 동성결혼 법제화가 되어있지 않다 보니 애써 현실을

외면하고 어쩔 수 없이 체념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에피소드 발표를 하기 위해 동성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파트너와 심도 있게 이야기하게 되었고 동성결혼을 못하는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이 얼마나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것인지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현실을 타개하고 싶다는 생각에 열정적으로 여러 나라 동성혼 법제화 사례들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동성혼법제화 사례, 대만의 법제화 사례 등 여러 국가들을 찾아보고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Marriage for all, 스기야마 후미노님과 교류를 하면서 이웃국가인 일본의 LGBTQ+인권활동과 동성혼에 샷포로법원 판결사례, 그리고 일본의 파트너십 제도 등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동성혼 TF활동을 통해 동성혼 법제화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인권에 대한 저의 역량 등 모든 부분에서 성숙해질 수 있었고, 전문가가 아니지만 어떠한 곳이나 어떠한 상황속에서 동성혼 이슈가 있다면, 제 생각을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을 길렀습니다. 또 GSL한 일동성혼 교류회 이후에는 이러한 의제들을 어떻게 우리나라 사회에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은 숙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경험을 원동력으로 삼아 한국이 동성혼 법제화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제 첫 TF활동이다보니 걱정 반 기대 반이었는데, TF가 마무리되는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웠습니다. DAWOOM활동의 첫 이정표가 된동성혼TF가 제 삶에서 잊지못할 정말 소중한 경험을 선사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TF활동을 하며 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주시고 응원해주신 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TF팀원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TF활동 소감 똥땅

안녕하세요. 동성혼TF 팀원 똥땅입니다. TF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스터디, 자료조사, 그리고 직접 일본 동성혼 운동에 긍정적인 힘을 보태주셨던 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 명의 개인으로 사랑하는 사람과堂堂하게 부부로 살아가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와 분명히 동성

TF활동 소감 성진

저 멀리 유럽과 미국에서의 진보로만 익혔던 동성결혼이 대만의 동성혼 법제화부터 올해 샤프로 지방법원의 진취적인 판결까지, 이웃나라들의 소식들로 가깝게 다가오면서 생기는 자극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동료들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국제교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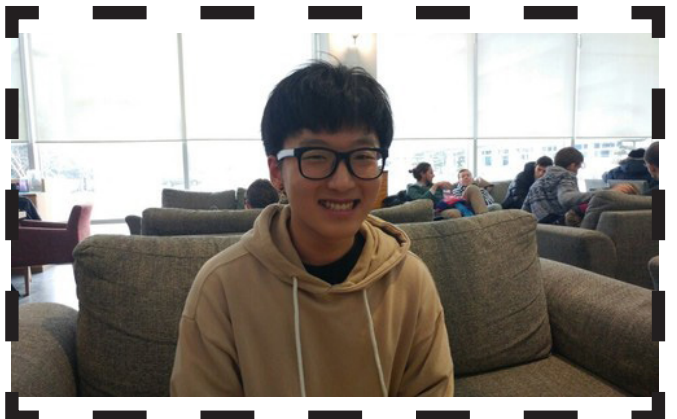
교류를 위한 사전 준비와 스터디, 실제로 Marriage for all japan과 후미노님과 만나면서 한국에서의 동성혼 운동을 되돌아볼 수 있었던 점은 앞으로 다음에서 우리 세대의 평등한 결혼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즐거운 상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이런 상상을 공유하는 우리 TF원들이 함께 한다는 것에 또한 힘을 얻고요.

늘 자료집을 마무리하기 전 활동 소감부터 작성할 때면 지난 프로젝트 수행 기간 동안 스쳐지나온 감정들과 접했던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가슴이 벅차오르

혼이 가능한 미래가 올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또한 다음의 일원으로서 개인보다 하나의 조직으로 움직이는 것이 보다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의논하고 시간을 보내며 다른 TF원 분들과 소속감을 얻고, 활동가 되어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동성혼 운동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할지, 한국 상황에 대입하여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함께 의논해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느리지만 천천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좋았고, 저도 앞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우리 앞으로도 느리지만 천천히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됩시다.



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활동에서의 감정이 사뭇 특별한 것은 이번 활동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인듯 합니다.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 성소수자의 인권과 동성혼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과 알게나마 서로를 지지하고 멀리서라도 응원하는 연결된 감정 또한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번 교류 활동에서는 아쉽게도 비록 화면 상으로만 접촉했지만 내년에는 꼭 일본을 방문하고,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서도 초대하고 싶어요. 반갑게 인사를 나눌 수 있을 그 때까지 힘내고 일본과 한국 모두 동성결혼을 성취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TF활동 소감 기용

국제교류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본과의 교류를 통해서, 보다 선명하게 한국의 동성혼 운동을 바라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극도 받으면서, 영감도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도 문화적으로 LGBTQ+ 가 많이 가시화되면서, 정치적으로도 보다 큰 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동성혼을 의제화하고, 그 필요성을 알리는 활동 과정에서 많이 배움도 필요했고, 또 동성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도 필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팀원들과 소중한 시간들을 많이 가졌던 거 같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들이 생겨서 너무나 기쁩니다.

TF활동 소감 제니

저는 이번 tf에 참여하면서 항상 비관적인 생각으로 비혼을 주장했던 제 생각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다음 단체 회원님들의 개인적인 얘기들도 듣고 일본과 함께 동성혼 법제화를 위해 함께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제 마음속에서도 항상 놓치고 있었던 무언가가 일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이 하는 이런 노력들이 저 개인에게 이런 영향을 끼친것과 같이 또 수많은 다른 개인들에게도 그렇게 이 사회가 조금씩 따뜻하게 변해갔으면 합니다.



TF활동 소감 현준

저는 이번 동성혼 교류활동에 참여한 것이 첫 활동이었습니다. 처음 활동을 하는 것이라 낯설기도 했고, 제 역량 부족 때문에 미팅을 많이 빠지기도 했으나, 성진님과 TF원분들 덕분에 활동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 동성혼과 성소수자 활동가와 단체와 교류하는 활동을 하면서 진보에 있어서 국제적 시각과 교류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제가 사는 세상의 한 편에서는 친구가 제게 자신의 동성연인을 자연스럽게 드러내



고, 트랜스젠더에 대한 존중과 페미니즘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제 세상의 다른 한 편에서는 페미니즘과 연관되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성소수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죽음으로 내몰립니다. 한 쪽에서는 진보가 상당히 진전을 이루었고, 다른 한 쪽에서는 아직 더딘 상황입니다. 제 경험과 같이, 일본의 동성혼 운동을 접하면서도, 같은 세상에서 두 양분된 세계가 공존하는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 위화감과 부조화야말로 변화를 가능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국가에서 시민들이 이루어낸 성취를 볼 때, 그러한 성취의 가능성을 확신하게 되고, 그 경이로움은 잊을 수 없는 동기가 됩니다. 청소 봉사에서 알게 된 지인과의 인연으로 시작해 시부야현의 동성 파트너십 제도 통과로 이어지는 후미노 스기야마 씨의 여정, 그렇게 성취된 동성 파트너십의 동력으로 동성혼 불허용의 위헌성에 대한 지방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메리폴올까지, 기술적으로 배울 부분도 많지만, 차별금지법 논의가 계속 연기되는 이 어두운 시간에서 잃어버릴 수 없는 동력을 획득한 느낌입니다.

프로젝트를 하면서 칸트가 프랑스혁명과 진보에 대

해 저술한 글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칸트는 프랑스 혁명에 논하며, 혁명을 관조함으로써 느꼈던 강렬한 느낌을 표현합니다:

‘이제 나는 특별한 예언력 없이도 우리 시대의 면면들과 징후들에 따라 우리 시대의 완성을 예견한다. 구체적으로, 나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이제는 불가역적으로 되어 버린 진보를 예견한다. 이 정도의 현상 [프랑스 혁명]은 인류사에서 잊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 사건 [프랑스 혁명]과 연결되어 이해할 수 있는 목적이 지금 당장 성취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적 헌법 개혁과 혁명이 최종적으로 무산되더라도… 이 철학적 예언은 아무런 힘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 사건은 너무나 중요하고, 인류의 이익과 너무나 영켜있으며, 그 영향은 세계에 이미 너무나 널리 전파되어 적절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기되지 않을 수 없다. 단순히 한 인민이 겪는 사건뿐 아니라 이러한 사건들에 점진적으로 참여하게 될 전인류의 역량을 시야에 두고 있는 사람에게, 이 사건은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의 가능성을 드러낸다.’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진보와 성취를 공유한 이번 국제교류에서, 저는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 가능성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제작	다움 동성훈 TF
지원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Homepage	dawoom-t4c.org
e-mail	dawoom@dawoom-t4c.org